

‘성완중리스트’ 파문...광주엔 ‘무풍’·수도권 ‘강풍’

광주 서구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무소속 천정배,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조남일 후보 등 5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 중반 판세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그 뒤를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와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4일 이 지역 유권자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p) 결과, 무소속 천 후보가 38.7%로, 새정치연합 조 후보(29.9%)를 앞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정 후보(13.5%)와 정의당 강 후보(4.5%), 무소속 조 후보(4.2%)로 뒤를 이었다.

앞서 중앙일보 여론조사연구소팀이 지난 달 31~1일까지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28.7%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22.8%)를 5.9%p 앞섰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9.6%,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8.9%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 신뢰수준에 ±4%포인트였다.

이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천 후보가 정 후보를 6%p에서 많게는 10%p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야당의 텃밭이자 심장부인 광주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는 뼈아픈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텃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당 대표가 선거가 본격화된 이후

정승 “힘있는 여당이라야 지역발전한다” 호소

조영택 “뒤통수 내줄 수 없다” 막판 뒤집기 총력전

천정배 “여도 야도 실망” 등돌린 민심 파고들기

강은미 “지역일꾼” 조남일 “노동자 대표” 총공세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야권 분열을 틈타 “어게인 이정현”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순천·곡성) 최고위원이 39.7%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여당 일꾼론과 불독 예산론 등을 주요 선거 이슈로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 후보 측에서는 야권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선거 보름 앞두고 약재로 타진 ‘성완중 파문’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무소속 천 후보는 새정치연합과의 차별

화를 피하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며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 민심을 훑고 있다.

특히 서구를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거나 서운함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야당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선거마감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 여부와 투표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과 옛 통진당 후보 선전도 관심거리다. 강 후보는 천 후보와의 단일화에 ‘지향점’ 다르다며 반대하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강 후보는 오랜 지역구 관리에서 맺어진 유권자와의 인연이 든든한 표심이다. ‘밥 먹여 주는 정치, 광주가 키운 지역 일꾼’을 강조하며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사실상 공중분해된 옛 지역구 되찾기에 나선 조남일 후보는 기아차 노조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기호	1	2	3	4	5
정당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정승(56)	조영택(64)	강은미(44)	천정배(60)	조남일(52)
약력	·전)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전) 국무조정실장 ·전) 18대 국회의원	·전) 광주시의원 ·전) 광주서구의원	·전) 법무부장관 ·전) 15·16·17·18대 국회의원	·전) 기아차 노조 위원장(광주)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지부자치 위원장
주요 공약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 설립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등 지역현안 예산 확보 ·자녀·어르신 건강관리 및 복지시스템 확충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강화 ·음식점 발전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문화수도 광주 위상 확립 ·종합호수 수질개선 및 중앙공원 생태하천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R&D 센터 및 기업 유치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미곡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교육문화 특구 조성	·공공형 최저임금 실시 ·중앙공원 생태문화테마 공원 조성 ·마곡동에 호남 최대 도서관 및 생활체육센터 설립 ·전월세 상한제·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선진국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수도에너지 산업 광주 전략 산업 육성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 설립 ·중앙공원 근린생활 공원 조성 ·광주·원도간 고속도로 서평주·빛가람 구간 조기착공 ·제2서구 노인복지회관 설립	·중앙공원 국가공원화 ·금호동에 고등학교 유치 ·중앙·매월동에 상설 혼잡 지역 지하도 신설 ·서구2노인복지회관 설립 ·기초 농산물 국가 구매제 도입

* 후보는 기호 순

경기 성남 중원 새누리 압승 분위기 반전 새정치 “해볼만 하다”

인천서·강화를 새정치 지지율 역전...신도시 젊은 표심이 관건

경기 성남 중원

새누리당 신상진, 새정치연합 정환석,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3차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초반 판세는 신 후보 압승 분위기였다. 신 후보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600여표 차이로 당시 야권 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에게 패한 만큼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재도전에 나선 만큼 야권표의 분산도 점쳐졌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4일 이 지역 유권자 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p) 결과, 신 후보가 42.1%로 정 후보(32.7%)와 김 후보(11.5%)를 앞섰다.

하지만, 선거전이 불붙으면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연합에서 지명도 있는 명망가들이 정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보완해주면서 추적이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신 후보의 안정적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 파문’(성완중 파문)은 이 같은 판세

를 단순해 흔들었다. 집권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1~12일 이 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결과, 신 후보(43.4%)와 정 후보(38.3%)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었다. 김 후보는 15.2%의 지지율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9일 “지는 것이 당연히 되던 지역이 이제는 승리를 기대하게 됐다”며 “보수층 결집이 변수다”고 전망했다.

인천서·강화를

새누리당 안상수, 새정치연합 신동근, 정의당 박종현 후보가 나섰다. 선거 초반 재보선 지역구 4곳 중 야당이 가장 큰 차이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었다. 안 후보가 2002년부터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내며 15대 총선(인천 계양·강화갑)에서 승리를 따내 인지도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다섯 번의 총선에서 4대1로 보수정당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3~4일 이 지역 유권자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p) 결과, 안 후보가 50.1%로 신 후보 40.0%를 10%p 이상 앞섰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이상 기류가 나타났다. 이곳에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검단신도시가 들어섰으며 내 번째 총선에 도전하는 신 후보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지역을 관리해온 데 반해 안 후보는 특별한 지역 연고가 없는 점이 부각되면서 애초 예상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더욱이 강화와 고양인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4곳 중 가장 해볼 만한 선거구로 바뀌었다.

여기에 성완중 파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서치뷰가 지난 11~12일 이 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46.8%를 기록한 신 후보가 43.8%를 얻은 안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0%p 앞섰다. 박 후보의 지지율은 7.4%였다. /북지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의 호남’ 야권분열로 與 오신환 선두

서울 관악을

서울 관악 을의 중반 판세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와 국민모임 소속의 정동영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12일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새누리 오신환 후보가 37.3%로 선두를, 그 뒤를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 수준 ±4.4%p) 내에서 29.0%로 뒤쫓고 있다.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23.5%, 무소속 송광호 후보가 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4~5일, CBS와 노컷뉴스가 조원

씨앤아이에 의뢰해 563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07%p)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오 후보가 43.7%로, 새정치 정 후보(24.9%), 무소속 정 후보(19.9%)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 을은 지난 13대 총선부터 27년 동안 야당 후보가 승리를 독점하면서 ‘서울의 호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전 초반만 해도 야권 후보 난립으로 야당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갔다.

하지만, 지난 10일 타진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여권에 큰 약재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판세의 유통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악 을을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한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후보도 모는 것을 ‘올인’하면서 관악 을은 4월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성완중 파문’을 뒤로하고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다지고 있고,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전통 야당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후보는 진정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관악에서 야권 재편의 활약을 들어달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과 막판 호남 민심 향배에 따라 관악 을의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m@kwangju.co.kr

200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